

소방수의 아내



김 속 자
(전남 광주시 신안동 481-20)

앵—애—ㅇ.

오늘 저녁도 어느곳에선가 또 불이났나 보다. 몇 시인가? 불을 켜고 시계를 보니 시침과 분침은 윗쪽으로 한곳에 겹쳐있다.

자정인 것이다. 그녀는 지금쯤 불이 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것이다. 아, 무사했으면…….

난 이럴때 언제나 우리집 옥상에 올라 불빛으로 물든 불난 곳을 향해 내마음은 달려 그이 곁에 있는 것이다. 그녀는 긴 호수를 잡고 힘찬 물줄기를 내뿜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방화모를 깊이 눌러 쓰고 화재 속으로 뛰어들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어린이를 구하고 있을 것인지 모른다.

잠한 밤하늘의 별들은 새록새록 빛나고, 저 먼 검은 건물 뒤편 하늘엔 붉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환히 밝아 있다. 아마 그곳에 불이났나 보다.

찬 바람이 생 불어왔다. 날씨가 추우면 사람들은 불을 더욱 가까이 대하고 불을 가까이 대하면 불이 난 일이 많은 것이다. 소방수인 내 남편은 오늘처럼 불이 나는 날이면 동료들과 함께 불난곳으로 자동차를 몰고 간다. 긴 호수를잡고 불을 끄는 작업 뿐만 아니라 모험을 걸때가 많다.

제일 먼저 집안 어디에선가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중요한 물건을 꺼내기도 하고,

불이 옆집으로 건너뛰지 않도록 방화벽을 치기도 한다.

그이와 결혼한 지 2~3년이 지나지만 그이는 내게 불난 곳의 소방작업에 대해선 어떤 얘기도 들려주지 않고, 불이 난 원인만 내게 들려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난 도대체 그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가가 매우 궁금 하던차, 마침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마을에서 불이 난 일이 있어 나는 뛰어가 멀찍히 서서 그이의 소방작업을 지켜보았던 것이다.

그이는 마치 신들린 사람 처럼 아주 익숙한 동작으로 작업을 지휘하고, 또 앞장서는 것이었다. 길게 눌러쓴 방화모 두텁게 입은 방화복, 그리고 역세계 불이 쏟아지는 호수를 불이 난 곳으로 깊숙히 끌고 들어가고 빨강계 타고 있는 화염속으로 헤집고 들어갈때는 내 마음이 온통 불더미 속이었다.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쳤던 하찮은 곳에 불날 위험이 항상 있다는 것을 「설마」로 핑계치고 잊고 산다. 그것이 아무런 일도 없으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만, 그 설마중 반드시 위험은 옆에 있어서 일이 터지오야 만다. 그때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야말로 잣더미로 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른다.

남편은 지금 제일 먼저 불난 집에 뛰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물을 것이다.

「가족들은 다 나왔어요?」

사람들은 위기에 처할 수록 어리석은 일이 많다. 자기집 물건을 챙겨 나오면서도 어린아이들은 깜박 잊는 수가 많다. 그래서 귀중한 생명에 화를 입는 수가 많다.

남편은 아직 사람이 집안에 있다면 어떠한 위험도 무릅쓰고 불구덩 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아주 침착하게. 그러나 가장 화염이 약한 곳으로 익숙하게 뛰어들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어린 간난일때 나를 안고 나오는 한 소방관 아저씨의 침착하고 익숙한 행동처럼

내 오른 발, 잔등엔 어린아이 손바닥 크기의 큰 흉터가 보기 싫게 그려있다. 난 자라오면서 남과 같지 않은 내 발등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그 흉터의 원인을 알고 싶었으나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았다.

겨울이면 양말을 신고 신발을 끼워 보이지 않지만, 집안에 있을때나 양말이 필요없는 여름엔 난처하기 그지없다.

제일 난처한 것은 학교에서의 용의 검사시 손발을 내놓으라 할때다.

국민학교 고학년부터 이 보기 흉한 흉터를 의식하고 내 마음 한 구석에서 피어오른 마음의 상처가 깊게 쌓여갔다.

난 부모님께 이 흉터의 사실을 물어보았으나 어렸을 때 잘못해서 그랬다고만 대답할 뿐 구체적 이야기는 없었다. 그러나 그늘진 사연을 알게 했을때가 있었으나.....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우리 가족이 셋방살이를 면하고 조그마한 '우리집'을 갖게 될때 이사를 다 마치고 아빠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이 집은 우리가족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집이다. 때문에 이 집을 우리가 보호하고 가꾸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조심할것은 불. 불, 화재다. 불은 누구를 봐주거나 인정이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가 조금 소홀할때 우리를 시험해보는 것이 불이다. —

첫째도 불, 둘째도 불조심이다.

아빠는 따로 나를 불러 말씀하셨다.

—우리는 할아버지로부터 약간의 재산을 물려받아 집을 장만했다. 아마 우리가 손수 땀흘려 이룩한 집이 아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나, 사소한 정말로 어처꾸

니 없는 실수로 우리의 모든 것을 화재속으로 날려버리고 나까지 화를 당할 뻔 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야기인 나를 재워놓고 석유풍로에 빨랫감을 엮어 둔 채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바람이 휴지를 석유 풍로에 날려 불이 붙었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집에 왔을때는 이미 불은 천정을 활고 있었으며 집을 빙 둘러 싸고 있었던단다. 엄마는 정신이 나간채 발만 동동 구르다가 그만 쓰러졌는데 소방수들에 의해 불난 방속에서 나를 구해냈단다.

—그때 발에 약간 화상을 입은것이 지금의 그 흉터지, 난 소방수 아저씨 덕분에 살아났지만 우린 너를 구할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 했는지—

그때서야 난 모든걸 알게 되었다. 우리 부모님이 화재 예방에 그렇게 철저했던 이유도 알게되었다.

난 그때부터 나를 구해준 소방수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을 했다. 불이 난곳을 볼 기회가 있으면 난 소방수들의 일사불란한 작업을 지켜보면서 '나를 구해준 사람도 저분들이었구나'하는 생각에 잠겨곤 한다.

난 내가 살았던 옛 마을로 가서 그때의 소방관 아저씨가 누구였는지 찾아보았으나 30여년전의 기록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일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자라면서 내 생명을 구해준 어느 소방수 아저씨의 생각을 내 의식속에 한결 한결 접어 두기 시작했다.

난 이따금 불더미 속에서 꿈틀거리며 죽어갔을지도 모른 내 어렸을 때의 망상을 생각해 내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해보는 것이다. 사람이 두 번 산다고 했을때 그건 분명 첫번째의 삶보다 다른것이어야 했다.

인생이란 자기가 생각한대로 운명지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난 우연한 기회에 한 남자를 알게 되었다.

치녀시절 산을 즐겨 찾는 난 단풍으로 물든 백양사 뒷산을 넘어 내장산으로 향하는 길목에서였다. 점심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 온 버너에 불을 붙여놓고 아름답게 펼쳐지는 단풍의 물결에 취해 마음을 모두 빼앗기고 있을때였다.

「아가씨, 밥티는 냄새가 나네요. 버너 불을 끌까요?」

웬 통명스런 남자의 목소리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남자는 저만치 앉아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난

무안해서 쳐다보지도 못했다.

「아가씨, 집안에서도 그렇게 정신을 한곳에 빼앗기면 큰일 납니다. 불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도 되는 것입니다.」

—불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도 됩니다—난 그 말에 이상한 전율같은 것을 느꼈다. 이 남자도 불과 무슨 인연이 있구나.

난 그 남자와 함께 내가 준비한 점심을 들었고 등산길을 동행했다. 그는 내가 묻는 말에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주었으며 아주 해박했다. 난 그에게서 그가 분명 화재를 막는 소방수같은 직업의 검색을 알았으나 물을 수는 없었다. 난 그에게 마음이 쏠리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한나절의 동행인 시간이었지만 오래전부터 깊이 사귀어온 사람처럼 느껴져 우리는 서로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다.

우리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그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그가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때, 그에게 내 인생을 바쳐 봉사하리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난 아가씨를 말할 만큼 능력이 충분하지 못해요」그는 나를 사랑하면서도 나와 결혼한 것을 승낙하지 않았다. 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의무라 생각하지 않았고 은혜를 잊지않는 어떤 사명감도 아니라고 내 자신에게 몇번이고 되뇌이곤 했다.

반대하던 부모님도, 선뜻 응하지 않던 그이도, 나의 진실 앞에서는 더 이상 그들의 생각을 고쳐 갖게 되었다.

우리는 결혼하여 단칸 방에 세들었을 때, 그이는 손수 쓴 표어를 부엌에 붙이고 불조심을 철저히 강조했다.

—앗차하는 방심속에 우리가정 빼앗긴다—

그이는 우리가 세들어 살고 있는 집건물 전체를 소방 검열을 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 깜짝놀랐다. 전기 배선의 불량에서부터 다락속의 자연 발화 물질까지. 한여름 슬라브 건물밑에 달구어진

다락방의 온도는 60°C를 넘는 수은주였다. 이 온도는 화재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온도란다.

우리는 병이 났을때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것처럼 불이 난 뒤에야 불조심을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가정을 영원히 지켜나가기 위해 〈만약〉을 대비해서 〈화재보험〉도가 입해 놓았다. 내가 어렸을때 우리집이 화재보험이라도 가입해 놓은 일이 있었다면 우리집은 것처럼 불행속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이는 불이나 진화작업을 끝내고 돌아오면 언제나 내게 화재의 원인을 말해 준다. 불이난 원인은 언제나 부주의의 그것이었다. 사람이 미리 막을 수 있었다. 아무렇게나 던져버린 담배꽂이가 커다란 화재를 불러오기도 하고, 규격품이 아닌 전선이 집을 태울수도 있으며, 열 기구를 잘못다뤄 당하는 수도 있었다. 그이는 사건이 있는뒤엔 언제나 원인별로 기록해 두고 막을 수 있었던 대책을 적어둔다.

어느날, 난 그에게 물었다. 「어디 화재학 박사는문이라도 제출려하고?」

그이는 웃으며 「우리 소방수는 불을 진화하는 일보다 미리 예방하는데 그 뜻이 있거든,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작성한 거야.」

그이는 자주 학교나, 어떤 모임에 나가 화재예방에 관한 강의를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가 기록해둔 연구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다.

—앵—. 환하게 밝아있던 하늘이 하얀 연기로 변하고 다시 어두운 밤의 그늘속으로 잠길때 불자동차는 경적을 울리면서 되돌아 온다. 그이도 무사히 돌아오겠지. 화마가 휩쓸고 간 그 집 사람들은 허탈과 절망속에서, 왜 사소한것을 실마로 넘겼는지 크게 후회하고 있겠지.

난 부엌으로 돌아가 연탄불을 다시 확인하고 내일 아침 그이가 돌아오면 그이를 따뜻이 맞이해 주어야지
“여보 수고하셨습니다” *